

즐거운 책읽기 방해하는 어린이 독서지도서들

'논술 상흔'에 맞춘 수업용 지도서들 많아... 분야별 독서교육 연구성과물 기대

오춘식

어린이도서연구회 회장

어린이의 독서는 40~50년을 독서기간으로 삼을 수 있는 어른에 비해 무척 짧다. 길어야 10년 안팎이다. 하지만 독서태도나 독서습관 등 독서에 관한 틀은 이 시기에 거의 결정된다. 그리고 어린이 시기에 읽는 책은 정서발달과 인격형성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어린이 시기의 독서가 갖는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어린이 독서교육은 늘 어른의 관심사였다.

그러나 폭발적으로 관심이 확대된 것은 90년 이후, 수능시험에 논술과목이 채택되면서부터다. 독서로 얻어질 수 있는 효과 가운데 사고력 향상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책읽기는 논술대비에 효용가치를 인정받았다. 덕분에 독서지도가 과외수업의 대상이 되었고, 이를 기회로 일부 단체에서는 독서지도자를 교육하는 단기 프로그램을 상업화해 '독서지도사'라는 임의적인 자격증을 주는 경우까지 생겨났다.

독서생활의 실천 강조한 책들이 주류

이같은 사회적 분위기는 어린이책 출판에 가속화시켰고, 발행부수면에서 전체 출판시장의 1·2위를 다투는 만큼 시장이 넓어졌다. 구매자들도 70~80년대의 전집구매방식에서 벗어나 어린이책을 낱권으로 구입하게 되었다. 어린이책 출판이 양적·질적으로 변화된 상태에서 어린이책 구매의 주도권을 쥐는 어른들은 책을 골라 읽어야 하는 고민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어린이 독서지도를 하는 교사(특히 학교 밖의 독서교육 담당자)들도 독서지도에 대한 좀더 나은 정보를 필요로 했다.

이런 요구는 출판에 당장 반영되어 90년대 초반부터 어린이 독서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서 및 이론서들이 쏟아져 나왔다. 초기에는 《재미있는 동화읽기 어떻게 지도할까》, 《아이들에게 책을 골라줄 때》(어린이도서연구회, 돌베개), 《책나라로 가는 길》(김수남, 웅진) 등의 지도서들이었다. 이 책들은 어떤 책이 좋은 책인가를 알고 싶어하는 독자층의 갈급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이후에는 가정에서의 독서교육을 특히 강조하는 책들이 큰 흐름을 이룬다. 《어린이책을 읽는 어른》(이주영, 웅진),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자》(짐 트렐리즈, 오리진),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될까》(곽정란, 차림)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가정에서 그림책 읽어주기, 옛이야기 읽어주기, 책방나들이와 같은 독서생활의 실천을 강조했다.

독서지도서의 내용은 학부모들의 공감을 끌어내면서 지역마다 '동화읽는 어른'이라는 학부모조직체를 뿌리내리게 했다. '동화읽는 어른'은 어린이책을 어른도 함께 읽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결성된 자발적 모임으로 학부모들이 어린이책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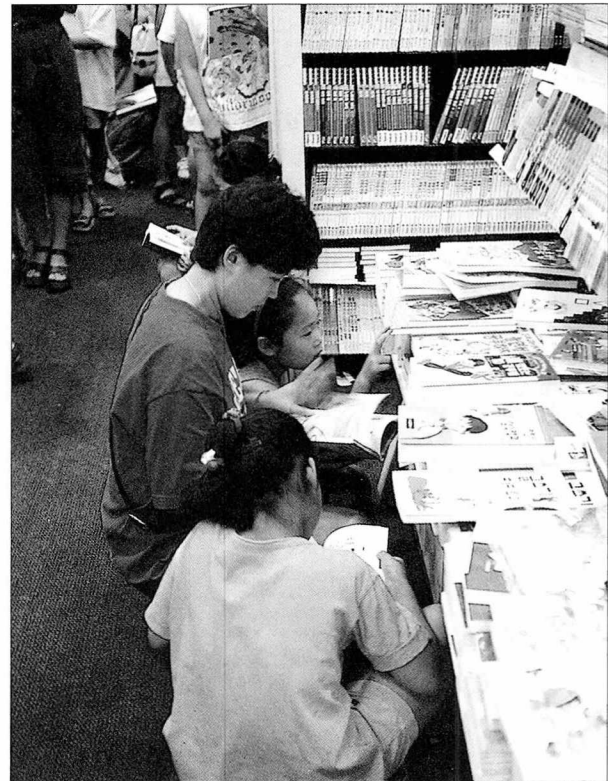
'독후' 활동에 지나치게 비중 뒀

어린이 독서교육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면서 독서지도서 역시 각 분야별로 전문지식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우리동화 바로 읽기》(이재복, 한길사), 《어린이와 그림책》(마쓰이 다다시, 샘터), 《어린이 그림책의 세계》(이상금 엮음, 한림), 《그림책, 읽어주세요》(조준영, 웅진), 《어린이책의 역사 1·2》(준로 타운젠드, 시공사), 《옛이야기 들려주기》(서정오, 보리) 등의 책이 나온다.

또 한편으로는 독서지도사들을 위한 수업용 지도서가 유행처럼 쏟아졌다. 《책 읽고 이렇게 해 보세요》류는 책을 읽고 그림그리기, 토론하기, 연극하기, 견학하기, 모둠으로 하기 등의 독서지도방법으로 어린이들이 책 내용을 창조적이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책을 읽고 하는 '독후' 활동에 지나치게 비중을 많이 두어 차칫 독서지도가 '책 읽고 나서 하는 활동'이라는 오해를 갖게 한다.

어린이 독서교육을 논술에 짜맞춘 수업용 지도서들도 이때 함께 나온다. 하지만 책읽기를 논술에 맞추다 보니 질이 떨어지는 작품들이 텍스트로 사용되거나 즐거운 책읽기를 방해할 소지가 있고, '논술을 위한'이라는 부제를 붙인 단행본 출판물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열린 교육이 시행되자 책읽기를 통합교육의 차원으로 다룬다는 명목 아래 동화 한편으로 언어·사회·사고·자연·미술·예술영역까지 담는 무리한 시도를 했다. 장점보다 문제점이 더 많은 이같은 출판풍토는 어린이 독서교육에

90년대 초반부터 독서생활의 실천을 강조하며 어린이 독서지침서나 이론서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논술에 짜맞춘 수업용 지도서들은 교육보다 상흔에 기대 있고, 어린이 독서교육의 진지한 고민보다는 오히려 즐거운 책읽기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



대한 진지한 고민을 담기보다 시류를 쫓는 알팍한 상흔에 기대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책도 예외는 아니다. 여기저기에서 짜기운듯 내용이 비슷비슷하고, 깊이 있는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하기보다 여러 이론을 자기 경험에 맞춰서 증복출판이라는 인상마저 풍긴다. 그런 면에서 올해 나온 《엄마가 어떻게 독서지도를 할까》(남미영, 웅진)는 시의성이 떨어진다.

독서이론에 바탕 둔 지도서 필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어린이 독서교육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에서의 독서교육을 담당한 지도서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 지역도서관을 중심으로 독서지도이론 및 구체적인 사례를 담은 독서지도서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최근 장르별 독서지도서나 사서, 어린이책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 올 초에 나온 《초등학교 독서교육》(김지도, 교학사)은 초등학교 국어과 수업과정과 연관이 있어 독서지도 내용을 끌어내고 학급문고나 학교도서관 운영에 관한 실제적인 지침이 들어 있어 눈길을 끄는 책이다. 그러나 학부모 대상의 독서이론서에 보이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며, 권장도서로 소개한 목록이 80년

대에 권장한 세계명작류들이어서 아쉬움을 준다. 학교현장에서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직접 교과서에 실린 동화를 분석한 《토끼와 거북이 거북이와 토끼》 이상의 성과물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다.

지역도서관의 독서교육 실태를 엿볼 수 있는 이로서 《독서교육의 이론과 실제》(김효정 외, 한국도서관협회)와 유아그림책을 주제에 따라 토론하면서 가치를 내면화시키는 교육방법을 제시한 《도서를 이용한 어린이 독서교육》(이준덕 외, 다음세대)은 개론에서 벗어나 각론을 충실히 담아낸 독서지도서로서 관심을 모은다.

그러나 우리나라 독서운동의 현황과 일본 도서관의 독서교육현황을 비교한 《독서교육의 이론과 실제》는 우리나라의 사례가 적다는 것이, 《도서를 이용한 어린이 독서교육》은 어린이들에게 읽힌 텍스트가 대부분 외국 그림책이라는 사실이 아쉬움을 남겼다.

각론으로 분화된 어린이 독서지도서의 출간은 어린이책에 대한 기본지식이 이미 선결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는 이것을 기반으로 각자의 장에서 무리익은 연구결과를 내놓아야 할 때다. 시류에 영합하는 독서지도서는 나와서도 안되지만, 설사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독자들에게 외면당할 것이다. ❖